



세계 미술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는 만큼 보이는 미술관 기행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명언은 미술관 기행에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미술관 기행에서 '아는 것'의 범주는 개별적인 작품 정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미술관의 성격을 알고 출발한다면, 같은 그림이라도 다르게 보이는 법! 언제라도 미술관 기행을 떠날 당신을 위해 세계 미술관을 안내한다. 에디터 유소라 사진 김수진, 박재찬, 우효성, 정영호 자료 제공 국립현대미술관(02-2188-6231)





1, 2, 3 2년 전에 재개관한 뉴욕 현대미술관(MoMA)은 회화 작품 뿐 아니라 비디오 아트, 조각, 디자인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현대 미술을 보여준다. 4 영국 내셔널 갤러리는 미술사를 한눈에 보기에 좋은 미술관이다. 5 화력발전소를 리모델링한 테이트 모던은 기발한 발상으로 탄생된 미술관인 만큼, 혁신적인 컨셉모더니 미술 전시를 주로 선보인다.

미술관을 관람하는 고전적인 방법

일반적인 박물관 투어는 고전 미술관부터 시작한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특정 시대의 작품보다 교과서에서 이미 보아온 익숙한 그림에 더 친근함을 느끼는 법이므로, 전체적인 미술 사조를 차근차근히 정리해보고 싶다면,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만큼 훌륭한 교과서도 없다. 13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서유럽 회화 작품 2300여 점 이상을 룸마다 사조별로 전시해 역사와 종교, 신화들이 서유럽 회화에 미친 영향을 차례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술관은 크게 네 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정면 입구에 있는 중앙 홀을 중심으로 서쪽 익관에는 미켈란젤로 등의 1510~1600년대 회화가, 위쪽인 북쪽 익관에는 렘브란트, 카라바조 등의 1600~1700년대 회화가, 그리고 동쪽 익관에는 쇠라, 드가, 고흐 등의 1700~1920년대 회화들이 전시되어 있고, 1991년 새로 개관한 세인즈버리관(Sainsbury Wing)에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나 보티첼리 등의 1260~1510년대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단연 인상주의 회화가 물려 있는 동관. 마치 미로처럼 뒀이 연결된 내셔널 갤러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안내 데스크에서 지도를 챙기는 일! 이곳에서 '꼭 봐야 할' 작품을 꼽으라는 질문은 너무 잔인하다. 기껏해야 렘브란트 컬렉션과 인상주의 컬렉션, 레오나르도 다 빈치 컬렉션 등을 지나치면 서운할 것이라는 정도의 대답을 할 수밖에.

본격적인 미술 역사를 감상하고자 한다면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 제격이다. 루브르는 450년이 넘는 오랜 컬렉션 역사로 인해 세계 최다의 컬렉션 수를 보유해 작품을 하루 8시간 동안 1분에 하나씩만 봐도 6달이 걸린다는 농담 같은 통계가 나올 정도다. 어느 미술관보다 교육의 기능을 강조하는 루브르는 작품들이 시대별로, 사조별로 전시되어 가이드 맵이 지시하는 대로만 한 바퀴 돌고 나오면 두꺼운 미술사 책 한 권을 통달한 것과 진배없을 정도다.

이곳을 방문할 때 주의할 점은 <모나리자> 같은 유명 작품을 보려면 수많은 인파가 지나가기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관광객이 그랬듯, <모나리자>를 둘러싼 관광객들의 뒤통수만 실컷 쳐다보고 오게 되는 수가 있다.

지극히 애국적인 미술관

미술관 프랜차이즈를 표방하는(이는 세계 미술관의 경향이기도 하다. 뉴욕과 스페인 빌바오에 위치한 구겐하임 미술관이 그 대표적 예다) 테이트는 테이트 갤러리와 테이트 모던 두 곳으로 나뉘어 있는데, 물론 두 곳의 성격은 확연히 다르다. 지극히 영국적인 미술관을 경험하고 싶다면, 테이트 갤러리를 가보자. 1897년에 개관해 1세기가 넘는 역사를 가진 테이트 갤러리는 애초부터 영국의 근·현대 미술을 보여주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런던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영국 전문 미술관이다. 반면 뉴욕 현대미술관(MoMA)처럼 세계적인 현대 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보여주는 테이트 모던은 런던너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에게 더 인기 있는 국제적인 명소. 국제적인 현대 미술 작품들은 대거 테이트 모던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테이트 갤러리가 런던인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곳에 영국인들이 셰익스피어만큼이나 사랑한다는 터너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마다 이곳에서 열리는 터너 프라이즈 전시는 세계의 미술 관련 전문가부터 일반인들까지 관심 갖는 빅 이벤트.

테이트 갤러리가 영국 전문 미술관이라면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은 프랑스 명품들만 모아놓은 미술관이다. 국제공항의 검색대에 필적하는 까다로운 입장 절차를 무사히 통과하고 나면 세잔이나 마네, 모네, 고흐, 고갱, 밀레의 작품들이 당신을 기다린다. 이곳의 소장품을 미술사적으로 따지면 고전 미술 컬렉션의 루브르와 현대 미술 컬렉션의 폼피두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근대 회화, 즉 신고전주의부터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아르누보에 이르기까지 19세기와 20세기 초 서양 미술사를 아우른다. 무엇보다 오르세 미술관의 매력은 전시장 내에서 기념 촬영이 가능한 만큼 자유로운 관람 분위기. 그림 앞에서 첩피덕 앉아 스케치하는 광경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역시 자국의 화가들 작품으로 컬렉션이 이루어진 미술관이다. 앤디 워홀을 비롯해 바스키야, 볼탕스키 등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해외 작가들의 작품도 많지만, 스페인의 예술가 특히

건축가 프랑크 Gehry가 설계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일반 건축물의 상식을 뛰어넘은 미술관 건물을 처음 맞닥뜨린 관람객은 누구 하나 곧바로 안으로 들어서지 않고, 기념 촬영을 하기에 여념이 없다. 미술관 안에는 세계적인 현대 미술품 외에 스페인 작가들의 작품이 다수 전시되어 있다.



카탈루냐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더 많이 소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에게조차도 낯선 예술가 리스트는 친근한 작품들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어느 미술관의 컬렉션보다 신선한 것만은 틀림없다. 미국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한, 군더더기 없이 깨끗한 이 미술관의 가장 큰 장점은 어느 전시실을 가도 혼자서 관람이 가능할 정도로 한적하다는 것. 이는 전시관과 상업적인 공간을 구조적으로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대 미술의 현주소

테이트 모던은 화력발전소의 리모델링이라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 미술관 건물 자체가 자극히 '현대 미술적'이다. 세인트 폴 대성당과 이어지는 노만 포스터의 '밀레니엄 브리지(Millennium Bridge)'라는 하이테크 건축물을 지나 이 미술관 앞에 맞닥뜨리면 처음엔 당황할 수도 있다. 거대한 공장같이 생긴 외관에 이게 과연 미술관이 맞나 싶을 정도.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그 느낌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기존 미술관처럼 질서정연한 전시 대신 자유분방한 전시 형태나 관람객들의 소음이 당신을 맞이할 테니까. 어느 미술관들과는 달리 테마별로 전시가 꾸며져 있던 이곳은 최근, 시대별로 배치를 다시 바꾸었다고 하니 이미 다녀왔다면, 같은 작품이 디스플레이 방식에 따라 어떻게 느껴지는지 비교해볼 수 있을 것.

여러모로 파격적인 테이트 모던에서는 전시만 보고 가면 서운하다. 유럽 미술관 내에 있는 서점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서점에서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미술 서적을 구입하고,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템스강이 한눈에 보이는 7층의 테라스에서 차 한잔을 마셔야 테이트 모던을 '제대로' 즐겼다고 할 수 있을 것. 이곳은 단순한 미술품만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만남의 장소, 사교의 장소, 휴식의 장소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는 진정한 21세기 미술관이기 때문이다.

20세기 중반부터 세계 미술의 흐름이 프랑스, 독일을 거쳐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뉴욕의 MoMA가 있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의 미술관과는 그 분위기가 확연히 다른 모마는 변화와 탐구 정신이 깃든 곳이라 할 만하다. 2년 전의 재개관은 모마가 회화 작품뿐 아니라 비디오 아트, 조각, 디자인 등 분야를 가르지 않는 현대 미술을

보여주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는 것. 테이트 모던과 MoMA에서 현대 미술에 발을 들여놓았다면 다음은 뉴욕의 휘트니 미술관에 가볼 차례다. 여타의 미술관에 비해 컬렉션 수는 현저히 적지만, 로이 리히텐슈타인, 앤디 워홀, 엘스워스 켈리, 바넷 뉴먼, 잭슨 폴록 등 현대 예술의 정점에 있는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어 현대 미술의 최전선이라고 볼 수 있는 미술관이기 때문이다.

미술관 기행, 또 다른 건축 기행

1977년, 렌조 피아노와 리처드 로저스가 설계한 퐁피두 센터가 공개되었을 때 파리지앵은 분개했다. 프랑스 전통적인 분위기와 대척점에 있는 미술관의 외관 때문이었다. 언뜻 보면 공사장을 연상시키는 이 건물은 내부로 감추어야 할 모든 구조나 설비,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수도관, 심지어 철근까지 몽땅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 하이테크 건축의 결정판을 이루는 이 건물은 21세기형 멀티플레이 공간을 지향한 컨셉트를 반영한 것이었다. 용도에 따라 혹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 변경이 가능한 건물은 컬렉션 수가 늘어나도 큰 규모의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은 것. 건물이 컨셉트와 어울리게 5만 6000점에 달하는 컬렉션은 20세기 현대 예술의 총집결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건축미가 유명한 미술관으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빼놓을 수 없다. 이름 없는 유럽의 변방 도시였던 빌바오를 일약 문화 예술계의 스타로 만든 이 건축물은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프랑크 게리의 작품. 거대한 꽃 같기도 하고, 우주선 같기도 한 이 건축물을 맞닥뜨린 관람객이라면 누구 하나 곧바로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도발적인 형태의 은색 티타늄 건물은 자연스럽게 비명에 가까운 감탄사를 자아내기 때문.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처럼 이곳의 컬렉션 역시 스페인 출신 작가들의 작품이 주를 이룬다. 19개로 구성된 각 갤러리는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 작품을 감상하는 것 외에도 박물관 내부를 감상하는 즐거움도 한몫한다. 너무 아름다운 건축물에 현혹되어 2001년 타게한 스페인 작가 후앙 무뇨스의 작품을 지나치는 우를 범하지는 말기를! ☺



1 세계적인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설계한 밀레니엄 브리지는 세인트 폴 대성당과 테이트 모던을 연결한다. 화력발전소를 리모델링한 테이트 모던은 다른 건물들 리모델링한 유럽의 어느 미술관 중에서도 혁신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2, 4 뉴욕 휘트니 미술관은 컬렉션 수는 다른 미술관에 비해 현저히 적지만, 현대 미술의 최전선이라고 볼 수 있다. 3 테이트 모던 내부, 처음 들어서면 무질서해 보이는 전시와 관람객들의 자유분방한 소음으로 어느 미술관 같지 않은 분위기에 당혹스러울 수 있다. 5 뉴욕 현대미술관 내부, 관람객은 자유롭게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6 미국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한 스페인 현대미술관에는 전문가들에게조차 낯선 스페인, 특히 카탈루냐 지역의 작가들 작품이 다수 전시되어 있다.

